

‘잔인한 연료물가’... 1년새 32% 급등

외환위기이후 25년만에 최고치
전기료 30% ↑...42년만에 최대
도시가스 36%·지역난방 34% ↑
대중교통등 인상예고...채감물가 ↑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료 물가도 1년 새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월 에너지 물가 부담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9.5%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다.

도시가스는 36.2% 올라 작년 10~12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를 제외하면 1998년 4월(6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작년 10~12월과 같은 34.0%였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원가 부담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전기요금은 작년 4·7·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4·5·7·10월에 인상됐다.

‘서민 연료’ 등유도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지난달 강력 한파가 닥쳤던 만큼, 서민들의 실제 연료비 물가 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 6.3%(전년 동월 대비 기준)를 정점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먹거리 등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5.8%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한 달 새 1.7%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2월(2.2%)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이상 한파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도 오른 영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8% 올라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는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기여도가 0.27%포인트로 지출 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가장 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돼 체감 물가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라

다.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다.

기본요금 외에도 전반적인 운행비가 모두 인상됐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됐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었다.

시는 오는 4월을 목표로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16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1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환승요금에 묶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대중교통 요금에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환승요금체계에 따라 도는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의 48%를 부담하는데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경우 환승 할인 폭이 커지면서 경기도의 재정 지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매년 800억 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오고 있다.

이에 경기 택시 요금도 3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대중교통 요금도 조만간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택시 기본 요금의 1000원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진우기자 leesw@jeonmae.co.kr

“직업계고 졸업자도 대졸 임금” 경북도 ‘K-로컬 프로젝트’ 추진

‘지방시대정책’ 중심으로
교육·취업·주거·결혼·출산 등
7대 혁명 프로젝트 본격 가동

경북도가 ‘K-로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방시대정책을 중심으로 4대 정주혁명과 3대 안전돌봄혁명을 더한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7대 프로젝트는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혁명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교육지원혁명 차원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학교수가 2학년 때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 실습을 시켜 취업시키는 과정을 들 수 있도록 한다.

취업 후에는 대졸자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나 군복무 후 복귀 때 상여금을 지원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대기업 수준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해 등록금 무상지원

과 지역 전략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지원혁명은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수준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대기업 수준 연봉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또 취업 청년에게 주거지원혁명으로 10년간 주거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결혼지원혁명으로 결혼장려금 5000만 원을 10년간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출산·보육·돌봄지원혁명은 산후 조리도우미 지원, 아이돌봄 가계부담제로, 119아이행복돌봄터 등 안전 돌봄 3대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낳은 뒤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추진단을 만들고 시군, 대학, 기업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해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정월대보름 풍속 고싸움놀이 4일 오후 광주남구 칠서동 고싸움놀이터에서 열린 제1회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고싸움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진남수기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 과열 양상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 경기 북부지역간 유치전이 조기 과열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에는 수원·의정부·파주·포천·이천병원 등 6개 공공의료원이 있으며 이들 지역 외 동북부 9개 시군에

수원·의정부·파주·포천 등 6개지역외 9개 시·군에 종합병원급 시설 ‘全無’ 지자체·정치권 앞다퉈 유치경쟁 총력 내달중 설립방침 등 1차 계획안 마련

는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한 곳도 없다. 5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295개 공약 중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지 선정 방식이나 추진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평군, 연천군, 남양주시, 양주시 등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김 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양주시 입지를 제안했다.

앞서 서태원 가평군수도 지난달 31일 김 지사를 만나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 건립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도 지난해 12월 30일 주광덕

시장이 김 지사를 만나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설립을 건의했다.

시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3만3천㎡)의 무상 사용 방안까지 제시하며 인근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까지 진료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점으로 부각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도 지난해 12월 8일 김 지사를 만나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치를 요청했다.

양평군 역시 응급실 신설이 군민 숙원 사업이어서 설립계획이 구체화하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시도 2019년 동두천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두천시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최적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경기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설립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일정이나 선정방식은 물론이고 설립 방식, 사업방식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며 “설립 방침을 담은 계획안을 이르면 3월 중 마련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번호 제 201104-총-113259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심의원인원
문의: 032-890-8700

변화의 중심
기회의 광기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랑할 기회
기회가 기회수도 넘치는 경기도
시작할 기회
창입할 기회
공부할 기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단신브리핑

문화누리카드 발급 운영

세종시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유·체육 분야 등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며 1인당 지원금은 연 11만 원으로 관내 수혜대상자는 약 9000여명이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관계기관과 공동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의정부/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시범운영

경기 수원시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전기·수도·가스 실시간 사용량·요금,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단지 내 탄소배출순위 등을 확인하며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 없어...경상국립대 76명 분
도·의회·창원시 TF팀 운영...“100명 규모 의대설립 총력”

경남 창원시에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만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5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76명인 전부인 상황에서 도의회가 의과대학 유치를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제40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박남용(창원7)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은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이 0.23명으로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적다”며 “지역 내에서 의료인력 교육과 양성, 진료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도 최근 ‘창원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기획단에는 조명래 제2부시장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아 의대 유치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유치 활동 로드맵을 수립한다.

앞서 창원대는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지역 공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에 참석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경남에 의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의대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도내 의사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3 의사 조사’를 한다.

도는 의대 신설 또는 정원 확대 등의 당위성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협의하고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06명으로 확대하고, 창원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등 공공병원 건립과 감염병 전담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으로 향후 10년간 많은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도내 시·군과 국립대 등과 협의 체계를 구축해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김진태 강원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현안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부수위계약 유지, 미 활용 군용지 점령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취등록세 2조 2552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조 1066억 원 증가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등록세는 고불가·고급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 1446억 원에서 15조 5264억 원으로 1조 6182억 원을 감액 조정(2022년 2회 추경)한 바 있다.

최원삼 도세정과장은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제원을 늘릴 수 있는 세계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충남도, 상하수도시설 확충 나선다

충남도는 올해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4964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분야 16개 사업 1841억 원, 하수도 11개 분야 164개 사업 312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2564억 원 보다 559억 원(22%) 늘었다.

도는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개 분야에 3123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상습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정비 등 도시침수대응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2023년 상하수도 관계 회의'를 개최했다.

상수도 분야 16개 사업 1841억
하수도 11개 사업 3123억 투입

수도시설,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1119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노후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12개 분야에 722억 원을 투입해 수도시설 개량과 우수을 제고 등 시군 수도 경영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는 적절한 하수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을 증진을 목표로,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11

이날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은 지난해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결과를 공유하고, 상수도 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올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물환경 정책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의 물복지 수준 향상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취재본부/한상규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제2023-002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선발인원 :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
가. 이사회 참석
나. 공단 경영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경영자문 활동 등
4. 자격요건
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기업의 경영 또는 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이 있는 사람
다. 기타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에 해당된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
나.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가. 계약기간: 3년
나. 보수: 무보수, 다만 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경영자문 활동 수당(월 30만원) 및 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 별도 지급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2. 6.(월), 09:00 ~ 2023. 2. 21.(화), 18:00
나. 접수처: (우 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신길동)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부)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ysisul2650@naver.com)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방문접수 시 응시번호를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와 연락하여(02-2650-1417, 1418)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에서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에 의거 통보하오니 연고자는 봉안된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 사항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성별, 생년월일,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화장일자, 비고
허성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8번길 11의 20, 여, 1942. 8.15., 2023. 1.1., 의료기관, 병사, 2023. 1.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2023-128
이창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21번지, 남, 1968. 6.2., 2022. 12.29., 의료기관, 병사, 2023. 1.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2023-161
2. 처리내용
가. 처리방법: 화장 후 봉안(5년)
다. 봉안장소: 인천가족공원 별빛당(무연고)
3. 연락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3)

인류 역사를 쾌속질주하는 즐겁고 풍부한 상상력! 만화 <사피엔스> 1·2탄 출간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후시 아사토 (사피엔스)를 읽지 않았다면, 원전을 뛰어넘는 만화 버전을 추천한다.
1. 만화의 탄생
2. 만화의 기쁨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후시 아사토 (사피엔스)를 읽지 않았다면, 원전을 뛰어넘는 만화 버전을 추천한다.
인류와 미래를 관통하는 대단한 정량·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생활안정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세요, 전국매일신문

이태원참사 100일... 與 “책무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5일 국회에서 희생자 낚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대형 참사 추모제가 국회 차원에서 열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제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국회는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가 추모 의식을 여는 것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추모제서 여야 “재발방지 노력” 한 목소리

유족 “국화꽃 단장 합동분향소 만들어달라” 요청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에 ‘제2참사’ 분신 경고도

민주당 이 대표는 “그날(참사일) 이후 유족에게 온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그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밝힐 책무가 정치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꼭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 비대위원장의 추모사 순서가 되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 등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유가족과 미래를 바라보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들딸 150분의 못다 핀 꽃송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돼 우리 마음에 기억되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속입법 추진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제에서는 생존자와 유가족 증언도 진행됐다.

참사 당시 생존한 김초롱 씨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그간 해온 군중 밀집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사 희생자인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유족이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 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저희가 치울 테니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분향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현화를 마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씨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려 하면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라

며 “철거하려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다른 유족들이 오열하며 “분향소

좀 설치해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기재부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

“지하철은 지자체 사업... 노인할인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

“시내버스 이미 폐지”...대구, 무임연령 65→70세 상향 검토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승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5일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수승 논란은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 그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

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이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많은 연간 1천억 원 안팎 적자를 내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중앙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교통뿐 아니라 무상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과 박물관, 지자체 고유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영역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했다.

결국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올해 47조 원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는 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는 것이다.

대구와 인천, 대전시는 별도 예산사업으로 무임수승 비용을 명시하고 보전하고 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전국 최상위 입지 굳혔다

작년 알셉(RCEP) 활용 집중 지원·올해 국제통상 이슈 특화사업 지원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 북서부FTA센터는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선제 대응을 도왔다.

또한 주요 포털, 지하철, 라디오, 현수막, 신문, 버스광고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센터는 지난 1월 1일 발표된 인

도네시아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PEPA)과 작년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맞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세율 안내와 실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도 사업 평가 결과 10년 연속 '1위'...북서부 FTA센터 3위 종합상담·컨설팅·탄소국경세 대응·홍보 등 다양한 지원 펼쳐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춰 교육·설명회와 함께 환경성적지표인증 컨설팅도 실시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만우 경기도 투자총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발표된 협정을 중심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및 마케팅 지원과 비관세 해외인증(유럽 화장품 CPNP) 취득 지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발굴 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춰 교육·설명회와 함께 환경성적지표인증 컨설팅도 실시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만우 경기도 투자총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영양군
YEONGYANG-GUN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담례품)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연500만원 한도)



영양군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세액공제



담례품 제공
(기부액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담례품 /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담례품
※ 담례품: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lovegyohyang.go.kr

尹대통령 ‘윤핵관’ 저격 安겨냥 “국정운영 방해꾼·적 인식”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안 의원이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윤핵관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과는 대통령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하다”고 직격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윤 대통령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연대’(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격양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최근 당원 간담회 등에서 “유난히 잘 맞는 연대, 윤안연대, 윤 대통령과 안철수의 연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극히 비상식적·무례 극치” 격앙 與 관계자 “安, 단일화 납득 어려운 행태…윤심 주장 어불성설”

근 참모들에게 “윤핵관은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면서도 “윤핵관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는 윤핵관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주도해 만든 ‘악의적 프레임’으로 본인을 주변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끌어들여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캠페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도 거들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라고 언급했다.

여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단일화 과정이나 인수위원장 시절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바 있다”라며 “그러고도 자신에게 윤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신우기자 heesw@jeonmae.co.kr

이재명 檢수사·천공·탄핵·난방비 ‘지뢰밭’

대정부질문 전문…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野 ‘천공 관저개입설’ 총공세 ‘이상민 탄핵·난방비 폭탄’ 격돌도…與 초선·부대표단 vs 野 최고위원 4명

여야가 6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격돌한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에 따른 임시국회 ‘방탄 논란’을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올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개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또 다른 국정 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최고위원을 4명(정철래·고민정·서영교·장경태)이나 배치하며 집중포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인 이란’ 발언, ‘난방비 폭탄’ 사태, ‘교육과정 5·18 삭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장·방패 싸움이 예상된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힘겨투기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강행 처리할 생각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잘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법도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로 만료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을 놓고도 여야는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설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청년의 힘으로 총선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의원과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이영호기자

민주, 장외투쟁 ‘역풍’ 우려에 또 나갈지 고심

‘尹정권 규탄’ 첫 장외집회…지도부 “성난 민심 확인했다” 자평 “수위 높이지” vs “역풍 맞을라” 공존…‘천명 핵심’ 정성호도 반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이 제차 ‘거리 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장외집회를 잇따라 열어 ‘정권 규탄’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당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도부는 추가 장외집회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당 의원들과 지지층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광장’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송례문 집회를 두고 당 안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민생 파탄과 검찰 악행이 계속된다면 2차, 3차 집회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송례문 집회를 두고 지도부 일각

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도 추가 장외투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 중경정 상황 인사들은 아예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하지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철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 국민보고회’를 겸해 경기 지역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열지 고심 중이다.

당 관계자는 “어제 집회도 원래는 서울에서의 ‘국민보고회’를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규모를 키운 집회 형식으로 열리는 미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 오해를 가져와 여론에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회 밖 무력시위’로 비치면서 중도층 지지세가 하락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조차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소수당이 국회 내 문제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는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에 대한 날 선 발언들이 터져나왔다.

“방탄 프레임에 이어 대선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러 거리로 나서선 안 된다” 등 노골적인 불만이 잇따랐다고 한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재점화…“2월 환노위 처리 최선”

15일 법안심사소위·21일 전체회의 예정…野 “결론 낼 때 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다.

5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이어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조법 2·3조에 대해 넓고 깊은 논의가 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안과 대안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환노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도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 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욕하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들은 이 법에 위한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가압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과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가압류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삼성생명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튼튼타

고객케어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인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점검

유용한 보험
보험금 청구부터 손해조사까지 전문인 보험 상담원 1:1 서비스

유익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 2023. 1. 1. ~ 2023. 12. 31.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 “행복한 고객케어, 해수에서 지혜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대출규제 완화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 늘었다

작년 12월부터 규제지역 15억 초과 대출 허용 영향 특례보증자리론 인기에 6억~9억 원 거래 비중도 증가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최근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내에서도 15억 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중저가 중에서는 특례보증자리론 주택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지난 4일 신고 기준)은 총 1천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작년 10~11월

거래량 1천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금매 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달 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올해 1월 15억 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바로 직전 두달간 15억 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포인트 커진 것이다. 이 기간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19.1%(254건)에

서 20.3%(347건)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9억 원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천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비중은 지난해 10~11월 20.1%(267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1월 27.1%(463건)으로 증가했다.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종전 48.3%(641건)에서 38.5%(657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시장에서는 특례보증자리론 도입 예고 효과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1년 한시 특례보증자리론 도입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4% 초중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시작했다. 특례보증자리론이 종전 주택보증자리론과 달리 대출 주택의 가격 한도가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6억~9억 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8.4%, 8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GH, 실버주택 공동체 활성화 '쟁걸음'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실버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GH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 광고 공공실버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안전 물품(자중소화 및 콘센트, 약 160개)을 광고 노인복지관에 전달하고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고독사 방지 등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을맞이 이벤트, 달고나 체험 활동 등을 실시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임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함께 사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 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 YM@jeonmae.co.kr

세종시 읍·면에 공동주택 건립 잇따라

올해 5226가구 공급...연기면 3270가구로 최다

세종시 읍면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올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5천22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연기면 3천270가구, 소정면 스마트그린산단단지 964가구, 연서면 710가구, 전동면 190가구, 장군면 92가구 등이며 모두 민

간 건설업체가 짓는다. 올해 신도시 공급 물량은 2천537가구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적다. 신도시와 가까운 조치원읍·연서면과 연기면 일대에도 2025년부터 대규모 공급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조치원읍 신흥·봉산·침산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대 87만5천717㎡에는 6천967가구가, 연기면 연기·

보통리 일대 61만5천909㎡에는 4천886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30년 완공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들 사업이 완공되면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읍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휘발유-경유 가격 같은 주유소도... 경유가격 하락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맞물려 가격이 같은 주유소도 등장했다. 5일 서울 강서구 한 주유소에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동일하게 게시되어 있다. 연영뉴스 취재기자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 박차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 6100억 원 규모 협약 체결 2024년 착공...국내 발전산업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5일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파키스탄 아스릿-케담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 5억 달러(한화 약 6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파키스탄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됐다. 오는 2024년 착공 후 202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EPC(설계·건설·구매) 담당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해외동반 진출이 가능해 국내 발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입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 정부와 30년간의 전력판매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상표 한국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은 "동서발전의 다양한 해외 사업 경험과 남동발전의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사업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양사가 상호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창원시 수소 모빌리티산업 우수사례, 네팔서 호응

대한민국 대표 선정·발표

경남 창원특례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우수사례가 네팔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네팔 정부와 교통공학회에서 주관해 지난 3일~4일 하이브리드 방식(화상회의 적용)으로 개최된 제2회 국제회의에서 시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회의는 지속가능발전 모빌리티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수소뿐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교통시설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화를 희망하는 전 세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들이 참석한 행사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수소모빌

리티 산업의 총괄적인 현황 및 사례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시의 수소모빌리티 정책 및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류효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심이 큰 만큼 국제사회에서 시의 수소 모빌리티 사업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조 합 장	지민구
이 사	한석민, 이상일, 김광수, 홍찬의, 박관우, 원종고, 허용자, 정중화
감 사	김광겸, 윤태수
상 무	이규화, 권혁선, 오성용

함께하는 100년 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2,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NH 대협농협

강남구에 11만 4736개 사업체... '도소매업' 최다

'복합 영상전자도서관' 명칭 공모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스타 디카페형 학습공간과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도서관 개관에 앞서 공식 명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마포대로 8 호텔나루 1층(도화동)에 835.7㎡ 규모의 '스타디카페형 학습공간 및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가칭)'을 조성 중이다. 이번 사업은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다.

구는 도서관의 운영취지와 활용방안 등의 특징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 거주지역이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서울시 전체 9.2%·자치구 중 가장 많아...종사자 80만1419명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에서 오는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정부가 실시하며 국내 사업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자료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

은 총 11만4736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말(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

된다.

구는 조사인력 238명을 선발해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가 원칙이되, 조사원의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올케 홈페이지(survey.k-stat.go.kr/isaup)를 통한 인터넷 조사를 신설했다. 아울러 전화 및 우편조사도 병행해 통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2021년 말 기준 강남구 사업체 수는 11만7개로 서울시 전체(118만8091개)

의 약9.2%에 해당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 개인사업체는 5만 9379개, 회사법인은 4만5539개로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만6299개)이었고 전문·과학기술업(1만5966개), 숙박·음식점(1만2202개)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종사자수는 80만1419명으로 남자 44만7809명, 여자 35만3610명으로 이중 상용종사자 64만1654명, 임시·일일 종사자 8만2911명, 자영업자는 6만127

명이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조사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준비하겠다"며 "조사대상인 사업체도 정책 및 연구에 기초 자료로 쓰일 통계 작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나비나드 교육봉사단 위촉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3 성북구 나비나드 교육봉사단 위촉식'을 지난 2일 오후 성북구청 마래기홀에서 진행했다.

나비나드 교육봉사단에서는 '나의 비전, 나의 드림'이라는 이름처럼 관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의 비전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2012년 발족한 이래 11년간 191명의 교육봉사자를 배출했고,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서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은 기술직 모임 '마이스터'가 최근 공단 협약단체인 답십리건축자재시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두 번째 지원활동으로,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상인과 이용객에게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마이스터'는 동절기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배수시설 및 전선수, 간판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외부 적치상대 점검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시장 이용을 위한 점검을 진행했다.

해외지사회사업 기업에 참가비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해외지사 회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KOTRA 해외무역관이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계약, 전시·상담회 또는 프로젝트 참가, 브랜딩 홍보,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과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고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해 창고와 물류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사업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 중 10곳 내외다. 구는 기업에 참가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주말농장 '솔이텃밭' 분양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시농업을 활용,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송파구 주말농장 '솔이텃밭'경작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위치는 방이동 444-17(1권역), 방이동 445-7(2권역)으로 330구획을 분양한다. 1구획(9㎡) 당 연간 임대료는 7만 원이다.

솔이텃밭의 본격 개장은 3월 25일이다. 12월 가을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솔이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텃밭 경작자에게 봄과 가을 연 2회 친환경 퇴비를 지원하고, 농기구 대여, 급수시설, 쉼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중랑구, 면목유수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에 다목적체육관, 공공도서관 등을 갖춘 문화·체육 복합센터가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최근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목유수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이 심의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면목유수지는 1976년 수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후, 1999년 유수지 면적의 대부분이 복개돼 현재까지 공공주차장과 부대시설(대형마트)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유수지 복개 주차장의 기존 부대시설(대형마트) 상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감도.

(중랑구청 제공)

부에 2개층을 증축해 문화·체육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건립 규모는 지상 2~3층의 연면적 8936㎡이며,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4,606㎡), 공공도서관(1,856㎡), 청소년문화의집(1,125㎡), 사회복지시설(1,349㎡) 등을 갖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

립은 올해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지역 필요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강서구-전북 완주군 자매결연... "상생발전 협력"

문화·관광·체육 분야 협력·농특산물 판로 지원 등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전날 전북 완주군(군수 유희태)에서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강서구와 완주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협력 ▲행정 정보 교류 ▲농특산물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이 완주군청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이어 "김태우 구청장님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아울러 방화폐기물 모든 처리 업체와 이전 협약을 체결해 혐오·위험 시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완주군의 행보를 보면 마곡점단산업단지가 위치한 우리구와 유사한 점

이 많다"며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완주군을 포함해 정읍시, 여주시, 순천시, 상주시, 강릉시, 임실군, 고산군, 태안군, 함안군 등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해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어 농특산물 판로를 지원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에 힘쓰고 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서초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10곳 관리 강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세차장, 실험실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10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불시점검을 실시해 온 구는 올해부터 지도점검 실시 전 사전 안내문을 통해 자율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각 업소마다 환경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을 통한 자율관리 이외에도 환경오염 불행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점검하고, 명절 연휴 등 시기별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폐수 오염물질의 희석 배출 및 무단 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과 보관 ▲실제 업소 운영자의 관련 교육 이수 등이다. 구는 점검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업소의 유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구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같은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대기, 폐수 배출업소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도 강화한다. 배출시설 공정진단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노원구, 난방비 긴급 지원...20억 원 투입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난방비 특별지원은 동북4구(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행정협의회(회장 성북구청장)에서 한파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뜻을 모아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지원은 앞서 발표된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과는 별개로 노원구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등에 구비 약 20억 원 을 긴급 투입한다.

먼저 구는 지역 내 경로당 172곳에 대해 월 10만 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 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 73곳은 제외한다.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모두 지원 대상이며, 총 290곳이 해당된다.

난방비 폭등으로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1곳당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총 1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오천진 용산구의회 '제7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전통시장 현대화·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의정활동 공로 인정

서울 용산구의회 오천진(사진 왼쪽) 의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7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장은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개발·재건축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육·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천진 의장은 "용산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귀중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귀를 기울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강북구 "스토킹·데이트폭력 2차 범죄 막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승희)가 스톱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스톱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홈 보안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신당역 스톱 스톱 범죄 사건과 같은 2차 스톱 스톱·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달부터 강북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스톱 스톱·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지원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된

대상자에게 가정용 환관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CCTV 설치 지원 외에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

CCTV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보안업체가 해당 자택으로 긴급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양천구 '보고싶은사람들' 성금전달식

이제 서울 양천구청장이 최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싶은사람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성금 1백만 원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내 달 말까지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수 자원봉사자증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2022년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강동구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는 2년의 유효기간 동안 강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20% 이내 할인,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등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강습 및 연습사용료 10% 이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인들과 간담회 가져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정부 유관기관 사업 연계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태원 현장 윈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비롯해 용산세무서장,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

으며 윈스톱 창구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달 12일 상인간담회에서 나온 예로·건의사항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다뤄졌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태원 회복상품권이 잘 활용되어 이태원 상

권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며 "정부 유관기관 사업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 1층에 마련된 윈스톱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합동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담 ▲관련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 등이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이태원 상권 윈스톱지원센터 간담회 현장.

(윤성주 제공)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자치구 최초

무주택 청년 1인가구에 매달 20만 원 지원... "지역사회 정착 기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김미경 구청장의 민선8기 공약이다.

구는 기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업 대비 대상 나이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1인 최대 지원금도 확

대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 만 19세~39세(1983년~2004년 출생자) 무주택 1인 가구다.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 원 이하이면 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6~14일 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자격 요건과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 거

쳐 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안내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형천기자 limhc@jeonmae.co.kr

도봉구, 영세 사각지대 난방비 긴급 지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영세 소상공인, 경로당, 어린이집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서울시 지원을 보완하고 난방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구 자체적 추가 대책이다. 유례없는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급등의 이종과 속에 정부,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 등이 옮겨올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긴급히 마련됐다. 구는 지역 소재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10만 원씩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사업 경로당 중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97곳에는 1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모든 경로당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어린이집 170곳 전체에도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약 3300가구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오는 20일까지 대상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구청 이모저모

연간 50억 원 중기 융자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연 50억 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융자규모는 25억 원으로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만 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 1.5%에서 0.8%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3.)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오는 12월까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구민이며, 근원지는 북부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경제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채용 일로부터 1·6·12개월로 나눠 분할 지급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해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칼잡이·우산수리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파견사업 등 총 6개 사업이다.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한다. 결과는 24일 발표 예정이며,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된다.

홀몸 어르신 대상 건강지원 확대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최근 홀몸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할아버지·할머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스마트워치, 체중계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혈압, 당뇨, 건강관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데이터가 발생하면 유선 확인하고 필요시 대면 진단을 실시한다.

또 강서우체국과 경찰서와 손잡고 '두루살핌 PO-U 프로젝트'를 연중으로 실시, 집배원이 배회 의심 어르신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도록 해 치매 고위험군인 홀몸 어르신 관리를 강화한다.



강동구의회 "초등학생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문헌섭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학교 설립기준 등 개정 촉구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최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문헌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강동구 아이들은 신규 학교 개설 기준

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설립기준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획일화된 초등학교 개교 기준을 개정하여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할 것 ▲서울특별시 교육

청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 ▲국회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재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동탁 의장은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관악구, 안전한 도시 조성 박차... "안전 정책 강화"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집수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과 개폐형 방범창을 장마철 전까지 설치한다.

구는 지난해 8월 침수피해를 입은 대상지의 반지하주택 등 4900가구와 소규모 상가 2000곳을 대상으로 물막이 판 1만여 개와 옥내역지벽(역류방지벽) 1만 80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개폐형 방범창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총 22가구에 1차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미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 600여 가구에 설치한다.

또한, 올해 처음 구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보험을 가입해 크고 작은 안전

사고에 보상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난월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한다.

'자전거보험'도 운영한다. 최근 친한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자전거 사고 발생에 대비, 2월 10일부터 1년간 자전거 운전 중 사고,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상해진단위로급, 입원위로급, 사고로 인한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내달부터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 없이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1년간 지원한다. 보장항목을 세분화해 구민들이 사고피해 이후 조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경희초 학생·학부모회

바자회 수익금 기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날 경희초등학교(교장 지연미) 학부모회 및 학생회가 연말 바자회 수익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고 3일 밝혔다.

경희초등학교는 코로나19 발생 후 2년간 바자회를 중단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말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를 주관한 경희초등학교 학생회장단과 학부모회는 바자회 수익금 500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동대문구에 기탁을 결정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졸업을 앞두고 연말 바자회로 모은 수익금을 직접 전달해 준 경희초등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영등포구, 전 부서·동 직원 명함 제작 지원

1인당 100매...공직자로서 긍지·자부심 고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처음으로 '직원 명함 제작'을 전 부서 및 동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입장 이상 및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원했던 명함을 전 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함은 1인당 100매씩 가로 9cm, 세로 5cm 사이즈로 제작한다. 향후 인사 발령, 신규직원 전입 등 수요 발생 시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앞면은 부서, 직책, 이름, 연락처

등 보통의 명함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며, 뒷면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뒷면 문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영등포 발전, 영등포 미래, 영등포 구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 사업 하듯이, 내 살림살이 하듯이 선택과 집중으로 구의 재정을 알뜰하게 아끼겠습니다 총 3안으로 구성되며, 개인별로 1안을 선택할 수 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종로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최근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23년도 적십자 희망성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라도균 의장과 이광규 부의장, 이시훈 운영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의원,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임형천기자 limhc@jeonmae.co.kr

중소 제조업체 지원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산업진흥원은 올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5일 군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고성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이며, 관련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 체계 구축, 해양심층수 제품 홍보 및 브랜드 화등 3개 사업, 15개 세부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 패키지 제작, 인증 지원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세부사업별 200만 원 ~3000만 원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 군청 및 해양심층수산업 고성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강원 양양군은 6일부터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이며, 신청한도는 개인 1대, 법인 및 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체(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로,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내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홍농연 회관 리모델링

충남 홍성군은 그동안 방치됐던 홍성군농업인단체총연합회영농조합법인(이하 홍농연) 회관을 리모델링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방치된 홍농연 회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 11억 원을 확보하고 11억 원의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총 22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회관으로 조성했다. 소유자인 홍농연에서는 군에 기부채납을 신청한 상태이며, 군에서는 활용 방안으로 농산물 로컬 매장, 농업인 단체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등 농업인 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할 예정이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호서극장 인근 양조장터 최종 선정 미술유산 저장 및 상설 기획전시 등

충남 공주 시립미술관이 원도심 일원에 2026년에 건립될 예정이다. 공주시는 '예술로 풍요로운 삶, 도심속 열린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총 158억 원을 투입해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미술관에는 미술유산을 저장하는 공간을 비롯해 상설 및 기획전시 공간, 어린이 갤러리, 교육체험공간, 편의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 부지는 아트센터 고마, 풀향기 숲 공원 등 후보지 4곳 가운데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원도심의 호

서극장 인근 옛 양조장터가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시민 1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3.2%가 원도심 건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후보지 선정과 함께 미술관 방향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2027년까지 400여 점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토

지 매입 등에 본격 착수한 뒤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 기본 및 실

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 2026년 하반기 개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철 시장은 "시립미술관은 호서극장 등 인근의 역사문화자원과 상생하는 원도심 문화거점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경기 광주시는 지난 3일 방세환 시장이 능평동을 찾아 지역기관·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능평초 개교에 따른 교통문제와 행정복지센터 진인으로 확장 등이 건의됐다. 광주/ 이만희기자 leemh@jeonmae.co.kr

‘천안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속 추진

주거·의료·돌봄 3대 핵심분야 자체 15종·연계 14종 등 29종

“충남 천안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도 추진된다. 천안시는 지난해 정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됐지만, 천안형 통합돌봄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살던 곳에서 더불어 편안한 삶을 누리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비전 아래 대상자별 욕구에

맞춘 주거, 의료, 돌봄 3대 핵심분야 자체사업 15종과 연계사업 14종 등 29종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의료와 돌봄 연계, 방문 의료서비스 확충·강화에 중점을 두고 거동불편자에게 방문진료와 간호, 돌봄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와 퇴원환자에게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돌봄’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했던 주거개선, 돌봄패키지(비대면 돌봄을 비롯해 방문형 의료서비스도 지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다. 천안/ 김석용기자 syk@jeonmae.co.kr

시는 무분별한 신청과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일부 사업 본인부담금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화 시 노인복지과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편안한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 18개 사무 특례 신청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머드산업 활성화”

충남 보령시가 지난해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출시한 머드케어 반려동물용 의약품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머드케어 반려동물용 의약품은 관광재단 쇼핑몰에서 머드케어 반려동물 발매

화하고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보령축제 관광재단은 지난해 머드케어 의약품 출시를 기념하는 국내 최초 반려견 할로윈 파티를 개최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성숙한 반

머드케어 의약품 출시 상품성 인정 보령시, 관광상품연계 등 신산업 총력

밤(30ml), 머드케어 반려동물 샴푸(300·500ml)를 판매 중이며 발바닥밤은 쇼핑몰 내 인기상품으로 등극해 소비자에게 상품성을 인정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에 온라인 할인 행사(26%)를 진행해 매출을 극대

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 올해는 보령머드를 활용한 반려견링 사업을 확장 추진할 계획이며 머드케어 의약품 시연,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견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령/ 이견영기자 leegy@jeonmae.co.kr

아산시,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 18개 사무 특례 신청

충남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과 관련한 18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으로, 2021년 통계청 기준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전국 2번째지만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수요에 대한 즉각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시는 향후 특례 지정 시 최대 15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 현재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아산폴리스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 도시 구축과 수도권 배후 핵심 도시로의 성장에 이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자연과 우리를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요

일상생활 속 버려진 플라스틱은 들고 돌아 결국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생물들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바다 먹거리로 돌아와 우리 식탁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일 우리의 식탁 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공모 선정

경북 영양군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인재양성, 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군은 문화원, 축제관광재단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지역의 전통문화 육성을 통한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군민의 문화정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문화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 김광원기자 kw_kim@jeonmae.co.kr

월내마을 트래킹 클리너 실시

전남 순천소방서119생활안전순찰대는 최근 승주읍 복지공동체와 함께 월내마을 6가구를 방문해 생활안전서비스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트래킹 클리너를 실시, 호응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순찰대와 복지공동체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6가구를 공동 방문 ▲기초 소방시설, 안전순찰이 및 안전커버 설치 ▲간강 상담 및 기본생활의료 서비스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교육 ▲트래킹 클리너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트래킹 클리너 서비스를 실시해 콘센트 및 배전반 등 이물질, 분진 제거로 전기화재 요인을 사전 차단 및 콘센트 안전커버를 설치해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길원 대기자

꽃감 1000만 원 상당 기탁

경남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최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꽃감 337박스(1000만 원 상당)를 군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현물(꽃감)은 저소득 537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성환 대표는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지는 꽃감을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꽃감의 달콤함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잠시나마 어려움을 잊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2023년 찾아가는 주민대화 실시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2023년 찾아가는 주민현장 대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3일 서부1동을 시작으로 23일 압량읍까지 15개 읍면동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한다.

주민대화는 지역 현안 자유토론, 분회경로당 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산/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국비 공모 예산확보 '총력'

전남 진도군이 최근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8기 핵심과제·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대규모 공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보고회를 통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76개 사업 총 1367억 원의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 김연일기자 ky@jeonmae.co.kr

박홍률 "무안반도 통합기반 다지는 원년 만들것"

올 시정 운영방향 제시...의대 유치 성공 역량 결집

청년친화형 산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주력산업 육성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은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무안반도 통합기반을 다지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전국체전 성공과 4대 주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380회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요 시정 방향은 ▲청년친화형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수리조선산업친화 경 선박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허

브와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 ▲전국체전 성공개최 및 경쟁력있는 교육스포츠타운도시 구현 ▲생동감 넘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무안반도 통합과 의과대학 유치 성공을 위한 역량 결집 등이다.

청년친화형 4차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타당성조사 완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실시

설계 착수, 세라믹산단 저가 임대, 4차 산업 활용 청년창업지원 공모 등을 제시했다.

수리 조선산업과 친환경 선박산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해경서부정비창 건립에 맞춰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수리업체 유치와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수산식품산업의 생산기공유통수출의 전주기체계를 구축할 수산식품수출단지 한반기에 착공하고 대양산단을 김 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관광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랜드마크 안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실시

트 조성,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목포를 경쟁력있는 교육스포츠타운도시로 만들어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생동감 넘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포함 출산축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장애인 맞춤 일자리 발굴 등을 제시했다.

6대 주요사업과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맞춤형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 빈집정

비와 생활인프라 개선, 녹색 둘레길과 명품 가로수길 조성,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 주도로 자매결연, 일손돕기 등을 펼쳐 유대감을 넓혀가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관광문화 분야를 협력할 방침이다. 의대 유치는 목포대학교 등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큰 목표를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목포/ 권상용기자 ks@jeonmae.co.kr

사천시, 신속 건축허가 민원처리 소통간담회

지역건축사와 함께 단축방안 모색

경남 사천시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건축사들이 최근 신속한 건축복합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분야별 인·허가 민원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원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은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건축설계도서 누락, 신청서 기재사항 잘못 작성, 건축

법 등 관련규정 미 숙지로 인한 부적합한 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만요인, 인허가 기간 단축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천/ 박중봉기자 bjb@jeonmae.co.kr

남원시, 올해 예산성과금 첫 시행...재정건전성 확보

절감 기여자에 최대 2000만 원 지급

전북 남원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지출 절약 또는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자체 재원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올해동안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내년 3월중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보급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5월중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의령출신 NH농협생명 간부인 윤해진 대표이사과 김재춘 부사장이 군을 직접 방문, 기부에 동참해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행렬을 이어나갔다. (이영준 제공)

농협생명 간부, 고향사랑기부금 출선수범...발전 기원

윤해진 대표·김재춘 부사장

경남 의령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 만에 각계각층 출향인사들의 기부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의령출신 NH농협생명 간부인 윤해진 대표이사과 김재춘 부사장이 군을 직접 방문, 기부에 동참해 고향을 응원하는 따뜻한 행렬을 이

어나갔다. 또 NH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접수창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어 이번 농협생명 간부들의 동참은 더욱 의미 있을 듯하다.

윤해진 대표이사는 "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응원하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정착과군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규기자 chpag@jeonmae.co.kr

하동 평사리, 소비자선정 브랜드 대상 선정

경남 하동군은 악양면 평사리가 올해 소비자가선정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99세대 176명이 거주하는 평사리는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대, 평사리들판, 평사리공원, 동정호 생태습지원, 고소성군립공원, 한산사, 슬로시티, 토지길,

매암차박물관, 토지문학재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또 박경리문학관, 한옥숙박, 최참판대 등 활용지를 활용한 관광을 통해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홍보하고 있다.

하동/ 임홍섭기자 imhs@jeonmae.co.kr



광양시가 이달부터 광양예술창고 미디어A동에서 새로운 인터랙티브 미디어콘텐츠를 선보인다. (영양시 제공)

광양시, 예술창고 인터랙티브 콘텐츠 오픈

'매화나무와 휘파람새' 영상·인터랙션 콘텐츠 2종 선보

전남 광양시는 이달부터 광양예술창고 미디어A동에서 새로운 인터랙티브 미디어콘텐츠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콘텐츠는 '매화나무와 휘파람새' 설화 이야기를 담은 실감 영상과 인터랙션 콘텐츠, 광양의 보물매시찾기(터치), 매직동물원 서커스(VR)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매화나무와 휘파람새는 설화를 바탕으로 청년과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파스텔톤 3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 계절과 시점에 따라 변하는 아름답고 수려한 영상미를 즐길 수 있다.

이어 광양의 보물매시찾기 인터랙션(터치) 게임이 시작된다. 떨어지는 매화 꽃봉오리를 터치하면 다양한 보물들이 나오는데 제한된 시간 내 광양의 보물매시를 찾는 게임이다.

총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됐고 마지막 마당에서는 대왕 매실이 등장하며 대왕 매실을 모두 터치하면 불꽃놀이 영상이 화면 전체를 수놓는다.

매직동물원 서커스는 VR기술이 들어간 매직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해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들에게 다양한 색을 입히는 게임으로 10종의 동물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꾸밀 수 있는 콘텐츠다.

모든 동물의 색칠 작업이 완료되면 알록달록한 동물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자신이 꾸민 동물들과 포토 타임도 가질 수 있다. 매직스프레이 사용법은 게임 시작 전 설명 영상에 따라 쉽게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양예술창고는 미디어 A동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시민 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소교동(소통교류동행) B동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광양예술창고 주말놀이터, 2023년 광양아트육선, 광양푸드토크콘서트, 그림·사진 공모전, 광양을 꽃 피우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길원 대기자

진주시 '지식재산 거점 도시' 건설 총력

산업재산권 권리화·컨설팅·시제품 제작 등 지원

경남 진주시가 지식재산 거점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위해 시는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3억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과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으로 산업재산권 취득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35만 원, 상표 25만 원

까지 이뤄진다. 또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특허청에 권리를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연중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지적재산 창출 지원 내용은 국내외 IP(지식재산) 컨설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라이브 TV커머스 및 SNS 홍보영상 제작 등이다.

특히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비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우수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품 디자인 개발비의 경우 기업당 1300만 원, 포장 디자인 개발비는 800만 원, 시제품 제작 사업비는 1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사업마다 20%의 기업 자부담이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따른 사업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는 오는 3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 박중봉기자 bjb@jeonmae.co.kr

광주FC '시민에 믿음주고 팬들에 사랑받는 FC' 구현

2023 새로운 비전 선포

광주FC가 '시민에게 믿음 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라는 '2030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광주FC는 일원화된 조직 체계와 성과 중심의 직원평가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 선수단 재량 확대와 기업 후원 유치를 위한 '구단 경영방식 개선' 선

수단의 지역밀착활동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상생 추구' 승패와 상관없이 즐기는 축구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연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회와 성장의 유소년 축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부장을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구단 운영에 대한 이사회 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

한다. 특히 선수 영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수단운영위원회에 의사·변호사·스카우터 등을 포함시켜 선수 검증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U-15, U-18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소년 총괄디렉터 운영을 통해 연령별 체계 훈련과 성장을 관리한다.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에는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특사경, 해외수입품까지 수사 확대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부터 해외 수입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중국산 제품 재포장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등 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수요층 수사 역량 집중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설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 울릉도 울릉군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북면 나리분지에서 가족·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이런주제로 눈축제 개최한 가운데 축제 참가자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울릉/백희경기자 harkg@jeonmae.co.kr

보령시, 봄철 산불 비상 근무체제 본격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입산자 실화 등 산불 주요 원인

충남 보령시는 최근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진화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봄철 산불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하고 있다. 주요 예방 활동은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 제거, 야간을 포함한 산불 진화·뒤틀림 감시 및 장비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등산로 정비 등이다. 또한 GPS 단말기 사용 등 지역별 산불 발생 패턴을 고려한 근무 및 단속시간의 신속적 운영으로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위험지수·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영상·산불신고 단말기 신호 등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입산자 실화, 산림에 연결한 논밭 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소각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동해시, 불법증축·용도변경 91건 적발

57건 이행강제금 부과 점검반 편성...중점단속

강원 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 총 9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완료 및 추진(사후허가, 신고 등) 등 33건을 정비했으며, 58건은 현재 시정조치 진행중이다.

사용 승인된 건축건축물과 지난 2021년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북평공단 위반건축물을 비롯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반으로 통보된 건축물 및 미시정 건축물 중심으로 상시 예방 정비활동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 배달전문음식점 970곳 위생점검

조리시설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광주광역시는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치킨집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적, 소독 전후 세균 수치를 현장에 서 보여주며 손 씻기와 조리기구의 살균·세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산가족정지를 활용한 산패오염도 측정으로 영업자에게 올바른 튀김용 유지 교체시기를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나섰다

167명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재배치

경기도교육청이 분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조직을 축소하고, 분청 감축 인원 84명을 포함한 총 167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신설 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통행정지원 확대 43명, 교원보충·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력 강화, 늘봄학교 추진 등 28명, 예방적 학교감사 등 39명이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달 한 달간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강원 삼척시보건소가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척시보건소 제공)

삼척시보건소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센터' 운영

강원 삼척시보건소가 농한기를 활용해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적노동 경로당을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4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9일 14시 우지동 경로당, 16일 14시 나릿골 경로당, 23일 14시 새천년 경로당, 28일 14시 도경23통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아산시, 배달음식 위생·안전 강화...위생점검

충남 아산시가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리아탕, 양꼬치 취급 음식점과 치킨 전문 배달음식점 등으로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영업장 면적 16.5㎡(5평) 이하로 객석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취약 업소, 민원 다발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여주시, 농번기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나섰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업설명회 준수사항·추진계획...협조 요청

경기 여주시는 본격적인 농업기를 앞두고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여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여주시 제공)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 총 9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완료 및 추진(사후허가, 신고 등) 등 33건을 정비했으며, 58건은 현재 시정조치 진행중이다.

반응과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농가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 연안해역 대조기 맞아 '관심' 발령

위험안내문자 발송 등 조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6일부터 9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

령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7일~9일)이 열릴 예정으로 관광객들이 무창포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출소 육의 전광판, 함내정박 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산/신동욱기자 shindk@jeonmae.co.kr

보령/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신안 임자도 어선 전복...밤샘 수색 추가 구조 없어

12명중 3명 구조...한국인 7명·베트남 선원 2명 실종
함정 항공기 등 대거 동원...에어포켓 등 집중 수색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월리 대비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12명이 탄 24t급 통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밤샘 수색을 벌이고 있다.

5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밤사이 잠수사 15명을 투입해 정보호(24t·인천선적) 선체 안팎을 수색했다.

해경 경비함정 2척, 해군 함정 3척, 민간어선 2척, 관공선 1척과 항공기 6대를 동원해 일대 해상을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정보호에 리프팅백을 설치해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하며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어선 내부 에어포켓(Air Pocket)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체를 두드리며 살폈으나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잠수사들이 수중 수색을 이어갔으며 해가 뜬 뒤 수색 범위를 더 넓힐지 검토 중이다.

이번 사고는 기관실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배가 뒤집혀 발생했다고 구조된 생존 선원들이 전했다.

사고 해역에서 3명을 구조한 광양프론티어호 이형근 선장(59)은 "정보호 선원들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젖은 상태로 뒤집힌 배 위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선장은 사고 발생 시각인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목포 해상관제센터(VTS)로부터 가까이 있는 어선 정보호가 전복됐으니 구조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8마일(12.87km) 떨어진 사고 현장으로 뱃길을 돌렸다.

40여분 뒤 도착한 바다에 정보호는 완전히 뒤집혀 바닥 일부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뒤집힌 배 위에는 유모(48)·손모(40)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F씨 등 선원 3명이 추위에 떨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월리 대비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청이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목포해양청 제공)

구조된 선원들에 따르면 사고 직전 유씨 등 선원 3명은 배 갑판 위로 나와 있었고 다른 선원들은 안에서 대부분 자는 중이었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된 이후 9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된 선원은 유모(48)·손모(40)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F씨로 확인됐다. 남은 9명은 한국인 선원 7명, 베트남인 선원 2명이다.

원할 예정이다. 또 신안수협 2층 회의실에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운영하고, 실종자 가족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지원도 꾸렸다.

대법, 무인 매장 현금 절도범...주거 침입은 '무죄'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여러 차례 서울 내 무인매장에 들어가 결제기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척 명의 휴대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개통해 실적을 올리는 등

여러 건의 범죄가 드러났고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에서 A씨에게 인정된 죄목 중에는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있었다. 무인매장에 침입한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소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황재하 기자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합의 미끼 수억 채겨...법정 구속

1억 원 채긴 60대 2명...2심서 집행유예 깨고 징역 1년
마을 발전기금 액수 3억 원 합의 후 금액·진술 변경 근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유치와 관련 1억 원을 뜯은 60대 2명이 함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피해자 범무법인 측에 "마을 발전기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마을 대표들과 합의했다.

용역비 4억 원을 주면 주민 동의와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지원 계약을 맺은 뒤 9천670만 원을 채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마을 발전기금 액수를 3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가 진술을 조금씩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범행 전 마을 대표들을 만났을 당시 '마을 발전기금 50억 원을 받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

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이전 사례를 들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50억 원이 기준액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을대표자들이 제시한 기금 액수가 3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갚았지만, 원심의 각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사건·사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검찰 송치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 A씨와 지인 등 6명의 진료비 200만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조 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조 원장과 A씨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맹창수 기자mchs@jeonmae.co.kr

부천 아파트서 불 60대 장애인 사망

경기 부천의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혼자 있던 60대 장애인이 사망했다.

5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4분께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집 내부가 일부 타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다른 주민 5명이 불길을 피해 스스로 대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지체장애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는 가족이 당일 오후 6시께 외출한 뒤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작은 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정선 하천서 4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강원 정선군에서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1분께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에서 A(40)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A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를 접수해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정선읍 신월리 한 도로변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4일 오전 10시 57분께 A씨 차량으로부터 50m 떨어진 하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 3. 8. (수) 오전 7시~오후 5시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자세한 선거정보 등 확인
nec.go.kr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동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에 참석.

주간간부회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6일 오전 8시 30분 상환실에서 열리는 주간간부회의 참석.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6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지방보조금 교육에 참석.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최식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6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

재향군인회 회장이취임
김도훈 충남 청양군수는 6일 오전 11시 청양읍 소재 복지타운에서 열리는 청양군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간부회의 참석
오도환 경북 영양군수는 6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상 수상

'제12회 202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
노관규 순천시장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계기 될 것"

전남 순천시는 '제12회 2023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는 이번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비자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시가 10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는 재해예방시설인 저유지와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푸른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농경지는 대규모 경관정원으로, 시내 중심의 강은 뱃길이 되어 정원체험선을 띄우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에 도시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생태도시 모델로 지역 발전을 견인한 성과를 인정받아 '로컬 콘텐츠 페스타'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전망이다.

노관규 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수도권에 이고 있는 집을 나누어질 수 있는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국제박람회 부문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제공)

국의 도시들이 국가정원 조성에 뛰어 들고 있는 만큼,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모든 노후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7개월 동안 개최된다. 서길원 대기자

포토뉴스



이인에 경기도 의원 고양 신원초 돌봄교실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에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및 고양시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과 고양 신원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최병일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의정실에서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안양/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김동영 경기도의원 택시요금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원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3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들과 만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고양시의회 복지관 연합회 기관장들과 정담회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고무미)는 지역 복지관 연합회 기관장들과 2023년 고양시 복지발전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임정일 기자 imci@jeonmae.co.kr



서산교육지원청-한서해양스포츠클럽 MOU 체결
충남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다수영 실기교육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서해양스포츠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산/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청도군 교통약자지원 차량 장애인협회에 전달
경북 청도군은 지난 3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 전달했다. 청도/변경호기자 byeon_KH@jeonmae.co.kr



김상우 정선군약사회장 고흥사랑 기부금 기탁
김상우 강원 정선군약사회장이 고흥사랑 기부금 활성화에 앞장섰다. 최근 김 회장은 군청을 방문해 고흥사랑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청양군, 재난 대비 훈련 '행안부 장관상' 수상

충남 청양군은 재난 대비 상시 훈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대형화재를 가상한 대비 훈련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 민간 지원단체와 사전 기획 회의를 개최해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대응 훈련의 세부적 관리 사항을 숙지하면서 현장감 있는 상황 전개에 집중했다. 특히 16개 관련 기관 종사자 283명

과 40여 대의 장비를 현장훈련에 투입하면서 재난상황실 드론 영상중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재난상황 송수신 시스템(PS-LTE)을 도입하는 등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전문화된 훈련 설계와 품질 향상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최근 음압면에 방문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승풍파랑 자세로 시정 이끌어 나갈 것"

이완섭 서산시장 음압면 방문 시민들과 소통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은 최근 음압면에 방문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음압면 해오름 체육센터에 방문해 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시장은 현장감을 높이고 질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한다리전통체험관 증축과 관련해서 "공간 협소와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양리, 상흥2리, 유계리, 도당리, 문양2리 등의 배수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는 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올해 건의해 주신 부분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 도로 진입로 개설, 교량 설치, 문화관 건립, 수변공원 조성,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설치, 인도 설치 요청, 가로수 식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 시정 추진계획과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부장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음압 어린이 공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과 향후 추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건의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격랑을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승풍파랑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산/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라선옥 회장 취임... "소외계층 살릴 것"

라선옥(6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원 정선군 협의회장이 5일 취임했다. 라 회장은 "적십자인 도주의 원칙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통해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회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라 회장은 지난 2000년 적십자사 봉사회 정선군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여성농업인 정선군협의회장, 적십자사 봉사회 정선군협의회 북평면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생활개선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한국생활개선 경기양평군연합회(회장 이성환)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생활개선회장 이·취임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및 회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14대 박성미 회장이 이어 제15대 이상환 회장이 취임했다. 이상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경영 참여 및 가족원 협의경영 활성화로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강하면 생활개선회장, 군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양평/홍문기자 hongms@jeonmae.co.kr



평택시통북시장상인회장이 취임식이 최근 평택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평택시통북시장 상인회 제공)

이철수 회장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 것"

경기 평택 통북시장 상인회장이 취임식

경기 평택시 통북시장 상인회장이 취임식이 최근 평택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10대 임경섭 회장은 임임을 통해 "지난 4년동안 코로나19 극복과 시장상권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 주신 임원진과 상인회원분들이 있었기에 상

인회직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11대 이철수(사진 오른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정감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택/김원복기자 kimwb@jonmae.co.kr

육동한 춘천시장 강원 FC 시즌권 구매

기부 릴레이 행사 통해 유소년 관람 기회 제공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강원 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 행사에 동참했다. 육 시장은 최근 강원 FC 김병지 대표이사와의 만난 자리에서 올해 강원 FC의 선전을 기원하며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 행사를 통해 관내 유소년 등에게 축구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김병지 대표이사는 춘천시에 강원 FC 홈경기 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요청했고, 육 시

장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육 시장의 기부 릴레이를 시작으로 시는 지역 내 각종 단체 및 기관과 전 시민 대상으로 시즌권 구매 홍보를 통해 월드컵의 열기를 강원 FC 춘천 홈경기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즌권 판매는 3월 31일까지 인터파크에서 구매 가능하며, 춘천 시즌권으로 F.A컵 결승전을 제외 한 상반기 모든 춘천 홈경기 입장 가능하다. 강원 FC는 오는 26일 대전에서 열리는 2023 시즌 K리그1 개막전 이후 첫 홈경기를 3월 5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 경기장에서 치른다. 상대는 작년 리그 우승팀인 울산이다. 춘천/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왼쪽)이 강원 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 행사에 동참했다. (강원FC 제공)

안양시 '학습재능기부사업'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경기 안양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 공모전에서 '안양시 학습재능기부사업'이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좋은 정책상을 수상한 안양시 학습재능기부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 충족과 사회 환원을 희망하는 강사들에게 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안양시 평생학습원의 정책이다. 재능기부가 가능한 안양시민과 강좌 지원이 필요하며 장소 제공이 가능

한 관내 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생활 목공예품 만들기, 미술 상담치료, 사진예술, 시와 나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16명의 재능기부 강사가 21개의 강좌를 운영해 총 655명의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했다. 또한 수도군단, 희망작은도서관 등 학습 지원을 요청한 관내 기관에 그 리픽테라피, 일본어 회화, 양금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등의 주제로 재능기부 강사를 연계해 청소년, 성인, 군인 등 33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배진석기자 baesj@jeonmae.co.kr

민생을 위한 '장외 투쟁(?)' 명분 없어

데스크칼럼

최승필

지방부국장



난방비를 비롯, 공공요금에 줄줄이 인상되고, 물가마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는 실종된 상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수레문 앞에서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벌인 것은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첫 장외 투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며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난방비 폭탄이 날아오고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대출 이자도 오른다. 점심값도 천정부지인데 월급봉투만 얇아진다"며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는 재깍을 터뜨리고 수익을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면 서민들 세금이 왜 그렇게 깎아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지지자들에게 "역사적 소명을 빼고 새기고, 어떤 핏방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왔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그 배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분연히 일어나 이재명부터 민주당의 이름으로 윤석열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싸움을 시작해나가자"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외침에 대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성도 양심도 상실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한 것"이

라며 맹공을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것에 취입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독재, 폭주라니 가담이나 한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지지하고 국민들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방탄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민생위기 관련 대책 기구를 띄우면서 민생 쟁기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또, 지난 3일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생 지키기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나 오차 범위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여당을 향해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 예방을 못 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정부는)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번 장외 투쟁은 사법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만을 지키려는 '방탄 투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 '민생을 위한 장외 투쟁'이라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명분 없기 때문이다. 민생 살리기 위한 '협치'가 필요할 때다.

집권여당 대표선거가 이래서야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불출마 이후 김기현과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지지층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편에 대한 인신공격 등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두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반복하며 안갯속 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기점으로 김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안 의원의 우세로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안 후보의 초반 스피드는 오히려 김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게 보인다.

현재 판도는 오는 10일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다. 본격적 출마자를 4명으로 추리는 이번 컷오프는 책임당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컷오프의 남은 기간이 초반에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기세를 꺾는 '안풍'으로 평가되고 있다. 컷오프 결과 발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대 관련 포인트는 김기현과 안철수 후보 사이 지지율 흐름으로 보인다.

올해 초반 해도 친윤(친윤석열)계가 강력한 응집력을 보이며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선두를 유지하면서 '어대현'이란 말도 나왔다. 그러나 후보 등록 직전에 지지율에 날개를 단 안철수 후보가 턱말까지 김기현 후보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설 연휴 이후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양자 대결 시 안 후보가 '대역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후 안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이를 놓고 김 후보와 친윤계는 나전 의원 불출마 등으로 인한 반감이 표출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마냥 마음을 놓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상 밖의 선전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입당한 안 후보는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

는 김 의원에 비해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당권 경쟁은 막판까지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컷오프 구도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컷오프를 누가 통과하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친윤과 비윤의 계파 대결, 또는 세력 대결로 흐르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입당한 책임당원 규모는 10만명 안팎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분석인데 이들의 행방이 더욱 주목된다. 후보 등록 첫날 당권 주자들의 동선과 메시지는 이런 초반 판세에 대한 각자의 진단에 따른 전략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김기현 대 안철수의 양자 대결 구도로 나온다.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신들이 당 대표로 지지하는 김기현 의원에 맞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급상승세인 안 의원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지는 양상이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안 의원을 겨냥해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니 '윤심 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를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 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친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불행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하면 자신이 '진윤'(진짜 친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런 비난이나 평가절하, 할퀴는 말은 상대 당의 후보나 의원들에게도 하지 못할 언사를 마구 쏟아내 오히려 국민들 앞에 불행스럽게 보인다.

한편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 안 의원측은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지, 있을지, 그걸로 대결했으면 좋겠다"고 맞대응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전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책과 비전발표는 없이 이런 추태를 보여야만 당대표를 당선시키지는 못하고 싶다.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의견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 전화 1588-5762 / 팩스 031-758-4360 / 홈페이지 정보 jeonmae.co.kr

외부 필진의 칼럼, 기고, 특사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 양날의 검 필로티 건축물

독자투고

백준영

전남 해남소방서 해남안전센터

주차자리 확보로 골목길 및 인근 불법주차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필로티 구조는 최소 3면이 개방되어 있어 공기 유통이 아주 잘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번질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 주거 공간 아래가 텅 비어있어 추위에 얼아하여 벽면을 단열제 중 저렴한 드라이버트 시공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에 취약한데, 드라이버트 시공을 하면 '기름에 불 붙는 식'으로 화재의 세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방법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화재대응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로티 구조 외부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화재 확산을 늦추기 위하여 건축물 천장재를 불연성 또는 금속 천장재로 변경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1층에는 가연물(쓰레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담배꽂조 무단 투기 금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큰 소리로 '불이야!'를 수차례 외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며 안전하게 대피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로티 구조란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형태를 말합니다.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 시, 장점은 골목길

전국매일신문 jeonmae.co.kr

발행 편집 인쇄: 최은희 박종문 / 사진: 박종필 / 편집: 이일영

대표전화 1588-5762

정치부 031-755-5600

경제부 031-752-0256

사회부 031-755-3484

지방부 031-755-5622

광고문의 070-4325-9858

FAX 031-758-436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수진동, 예능빌딩)

1987년 4월 1일 창간등록번호 가-438(일간지)

본사주소: 중국 요양빌딩 3층 본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96,000원 / 1부 70원

경남본부 055-761-7882

서울본부 02-749-0922

인천본부 032-751-1478

대구본부 053-471-1111

광주본부 062-361-0145

경북본부 031-967-1616

충남본부 043-255-8877

제주본부 064-723-1950

복유럽식 삶의 교육 이야기학교

장한섭 외 12인 지음

STORY SCHOOL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다

누림북스

한국 교육의 변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필독서!

“복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 놀라기만 하다.”

“이 책은 ‘교실 혁명’을 넘어서 교실이 없는 이야기학교의 이야기다.”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다

복유럽식 삶의 교육의 가능성, 이야기학교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복유럽식 삶의 교육 이야기학교

장한섭 외 12인 지음
신국판 | 240쪽 | 13,000원

현장 냄새 가득합니다!

13명의 교사가 함께 쓴 대안 교육 이야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Ski Half-Pipe in Freestyle HP

국내 유일의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고의 스키 하프파이프 코리아 오픈 전국매일신문에서 주최하고 대한스키협회와 함께하여 전연령층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프리스타일 이벤트



성공개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스키하프파이프 대회

2023.02.03/금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전용슬로프

- 주 최 | 전국매일신문
- 주 관 | 플레이영
- 후 원 | 강원도·강원도의회 · 경기도체육회 · 대한스키협회
- 종 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참가대상 | 초·중·고·대학·일반부 스키어
- 시상부문 | 전 종목 1·2·3위

※ FIS(국제스키연맹)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룰과 경기운영방식에 근거하여 운영